민선 6기 취임 100일 인터뷰

초중 8시50분, 고교 8시20분 등교 검토
'사학 조례' 제정 채용·회계비리 막겠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초·중학교는 8시50분에 등교해 9시에 수업을 시작하는 내용의 '등교시간 조정 표준안'을 만들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등학교는 보충수업과 연계돼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등교시간을 찾겠다면서 1교시 수업 시작(8시30분) 10분전에 등교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선 2기 슬로건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을 내걸었다. 어떻게 학교현장에 구현할 건가?

▲지금까지 교실 수업은 교사의 가르침 중심이었다. 앞으로 아이들 스스로 배우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업 혁신을 꾀하려고 한다. 이는 협력수업과 토론수업 중심의 수업 구조다. 특히,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와 교사의 수업권·평가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는데 준비는? 광주만의 특징은?

▲광주는 교육부의 계획보다 1년 앞서 내년에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진로 탐색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걱정이 많다. 교수·학습 방법을 아이들 배움 중심으로 바꾸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것이 광주형 자유학기제다. 광주에 맞는 민주인권체험과 문화예술체험을 진행하겠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않기로 했는데?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때문에 다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에 따라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정부 정책사업인 만큼 국고로 책임져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원할 근거가 없다.

-'9시 등교' 계획은?

▲'9시 등교'는 9시에 등교하는 개념보다는 9시에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등교시간이 늦춰지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가족과 대화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이 자고 밥 먹고 학교에 올 수 있다면 집중도도 향상되리라 생각한다.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은 0교시 수업 등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학교교육 정상화의 하나다. 학기 중에 시행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립기관 운영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사학법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조례가 꼭 필요하나?

▲일부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채용 비리와 회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감사를 강화해 행·재정적 제재를 가했지만,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한계에 부딪쳤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위탁으로 신규교사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부자 고발 제도를 활성화해 사립학교의 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

-광주에서는 사실상 자사고가 폐지됐다. 자공고에 대한 특혜 논란도 있는데?

▲자사고 정책은 실패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고교 다양화 등을 내세웠지만 귀족학교로 변질되고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자공고는 다르다. 교육과정 운영도 일반고와 같고, 학생 선발 과정에서 성적 특혜도 없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인성·창의성 교육 높이는데 주력
공부 잘 가르치는 교사 인사 우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앞으로 4년 전남교육은 교육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반고는 '하이플러스' 사업을, 특성화고는 '기업맞춤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장 교육감은 "도서벽지에 근무하지 않고 일반고에 근무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력을 끌어올리면 이를 평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선 2기 100일 소회와 앞으로 펼칠 전남교육 정책은?

▲지난 1기는 열악한 전남교육의 토대를 닦고 체제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앞으로 4년은 그 토대 위에서 교육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미래를 살아갈 전남의 아이들에게 미래핵심역량인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어 교육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력 향상을 위해 인사 우대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아는데 내용은?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전남의 특수한 교육환경 여건상 도서벽지에 근무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의 허점은 진로진학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면 이를 활용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도서벽지로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해 일반고에 근무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력을 끌어올리면 이를 평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섬에 가지 않아도 공부를 잘 가르치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열심히 일한 학교장이나 교육장도 인사상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일선 학교장의 교육장 임용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9시 등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9시 등교'는 학생의 건강보호와 수면권 보장 차원에서 비롯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등교시간은 학교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전남은 지역이 넓어 학교 특성이 다양하다. 등교시간은 학교마다 학교교육 활동, 학생·학부모의 요구,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대로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않기로 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재정 파탄 우려가 제기되는데 해법은?

▲국가 정책인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으로 내년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다. 지방교육재정난 해소를 위해선 누리과정 등 국가시책사업은 국고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5% 정도 인상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자사고 정책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이 필요하듯이 공부도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의 하나이므로 자사고도 학생들의 선택권 인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운영의 문제에서 지금과 같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자사고 논란은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 없이 해결하기 어렵다.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지원 요청

윤장현시장-김윤세 새누리 시당위원장, 오늘 김무성 대표 면담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윤세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김무성 대표와 면담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될 면담에서 윤 시장과 김 위원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국비 확보 등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 추진 당위성 대해 설명하고, 광주 자동차산업을 위한 제안을 할 방침이다.

윤 시장과 김 위원장은 김무성 대표 면담 이후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해 주요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시장은 애초 이날 광주 서구청을 방문해 구민들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에서 김 대표와의 면담 시간을 알려옴에 따라 이를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김 대표에게 전기차와 수소전지차 등 미래형 자동차핵심부품 생산단지 조성 등 광주 자동차 산업밸리 육성안을 소개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됐던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지원 요청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윤세 위원장은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은 광주시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이뤄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조기 완공을 위해 내년 국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잘못된 외국어 관광안내판 바로 잡는다
전남도, 3000여개 대상 일제 정비키로

문광부에 예산 6억 지원 요청

중국 '요우커'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남도가 잘못된 영문·중문 등 외국어 관광안내표지판 3000여개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관광안내판을 전수실태조사한 결과 전남은 영문의 경우 10개 가운데 9개, 중문은 10개 가운데 7개꼴로 오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비대상 안내판은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가 병기된 안내판으로 도가 설치한 18개소, 시·군에서 설치한 3037개소 등 총 3055개소다.

외국어 적정 표기 여부를 시·군과 함께 일제 조사해 오류 표기된 것을 바로 잡고, 설치한 지 오래돼 식별이 곤란한 안내판은 교체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오류가 경미한 표지판은 시·군 자체예산으로 정비하고, 대형 안내판은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6억62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김성일 문화도시추진단장 유임

최근 사표를 냈던 김성일(52)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유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김 단장을 유임하고 기획조정실장과 종무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일 김 단장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1급 고위 공무원들이 인사를 앞두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1년여 앞두고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아시아문화개발원장도 16개월째 공석이어서 문화전당을 이끌 두 수장의 '공백'에 관심이 쏠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